한국불교 세계화·사회와 소통 '화두'

총무원장 스님, 종민·월공·법해스님 특보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특별보좌관 3명을 추가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외·사회·문화 담당 특별보좌관에 종민·월공·법해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은 해외특별교구담당, 중앙종회의원 월공스님은 사회담당, 서울 진관사 총무 법해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개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소임을 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무애스님이 해외특별교구담당을 해 왔는데, 동안거를 맞아 선방에 가면서 사퇴의사를 밝혔고, 종민스님을 추천했다"면서 "내년 3월 임시종회에서는 해외특별교구 관련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성효스님이 중앙종회 사무처장 소임을 맡으면서 문화콘텐츠 역량이 많은 법해스님을 불교문화콘텐츠개발 특보로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사회적 현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부장스님과 의논해서 잘 대처해 달라"고 사회담당 특보 월공스님에게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는데 특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특별보좌관단(團) 단장 정념스님은 "21세기를 맞아 종단도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총무원장 스님의 뜻"이라면서 "안으로는 종단 내부의 일을 살피고, 밖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불교와 함께 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념스님은 "종단의 뜻을 잘 받들어 (특보단) 회의도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승가복지 특보 초격스님, 언론미디어 특보 장적스님, 해외특별교구 특보 종민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교문화컨텐츠 특보 법해스님, 사회특보 월공스님, 특보단장 정념스님, 전산특보 정범스님, 박기련 종책특보.

이날 특보 임명식에는 특보단장 정념스님, 언론미디어 담당 장적스님(불교신문사 주간), 전산 담당 정범스님, 승가복지 담당 초격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박기련 종책특보 등이 배석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후 총무원장 특보단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월2회 정례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같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특보단장 정념스님 인터뷰

-특보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특보단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보단 스님들의 의견이하다. 총무원장 스님에게 임명된 특보단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에 대해 특보들이 공조하면서 방안을 찾겠다.

-재정특보로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겠는가.

=총무원장 스님께서 임명장을 주면서 부탁하신 부분이 '안정적인 종단 재정 확충'이다. 종단의 살림은 늘어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종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 그렇다면 분담금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분담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분담금을 계속 인상하다보면, 각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불사들이 자칫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인상하지 않고, 여력을 사찰에서 추진하는 교육·포교·복지에 더욱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주어야 한다. 종단은 신도들에게 받는 '신도교무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23일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사진 오른쪽)이 총무원장 스님에게 군법당기금을 전달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논산훈련소 군법당, 저개발국가 교육지원 등 사용

선운사·봉선사·조계사 아름다운동행에 기탁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법만스님)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인묵스님),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이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을 기탁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지난 23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 기금 2000만원를 지정 기탁했다. 이에 앞서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은 군법당 기금 2000만원과 유네스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지난 22일 북한 수해복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찰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일텐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해주어 고맙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인데, 스님들의 동참으로 큰 힘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성수 기자

■ 신임 중앙종무기관·유관기관 소임자 수행이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공심(公心)을 갖고 일을 하는 국장이 되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국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총무원장 스님의 이번 인사로 중앙종무기관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신임 국장스님들의 약력을 정리했다.

기획실 기획국장 석연스님 = 1989년 백양사에서 수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범어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학능스님. 본사는 백양사. 제주 관통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실 사서국장 덕조스님 = 1990년 용주사에서 송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원경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호법부 상임감찰 원묵스님 = 1993년과 1998년 통도사에서 도원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호법부 상임감찰 진관스님 = 1995년 통도사에서 도진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2002년 직지사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기획실 감사국장 우봉스님 = 1994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법장스님. 총무원 상임감찰과 사서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견진스님 = 1982년 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은사는 동일스님. 전통불교문화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종회의원이다.

호법부 상임감찰 등목스님 = 1995년 해인사에서 혜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9년 직지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근일스님.

호법부 조사국장 혜만스님 = 1993년과 1998년 통도사에서 창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철안스님. 총무원 상임감찰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남양주 봉영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호법부 상임감찰 도견스님 = 1992년 도선사에서 혜성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혜성스님. 현재 법장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호법부 호법과장 설도스님 = 1995년 해인사에서 범각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99년 직지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성수 기자

본·말사 주지인사

(11월16일 종무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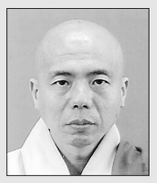
영담스님
부천 석왕사

준법스님
횡성 보광사

승안스님
강릉 성불사

(11월19일 종무회의 결과)

종묵스님
고성 운흥사



의백스님
구례 불락사

선양스님
성주 광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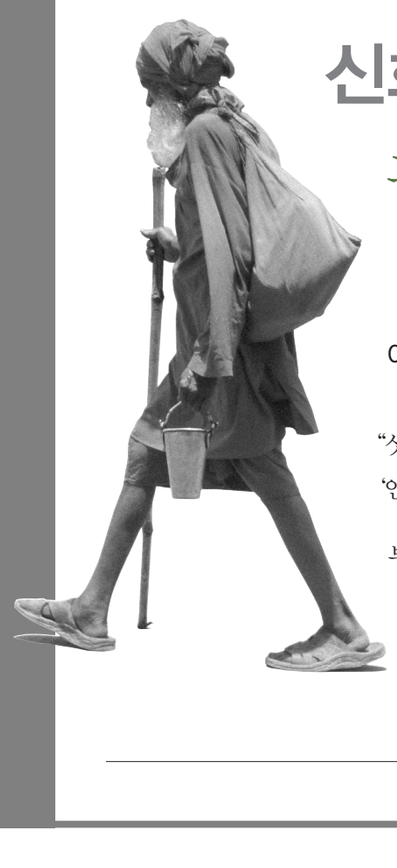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27기 행자 모집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는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을 한달간 삭발염의하며 체험해보는 제27기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오는 2011년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 1달간 진행되며 오는 12월6일까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기출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이상 일반 남녀 50명을 선발하게 되며, 수행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로서 등록하고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갈마와 도량결계의식과, 삭발식을 거쳐 행자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예불 및 식당작법을 익히고 〈초발심자경문〉등을 배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성지에서 쓴 편지 인간 붓다에 대한 斷想



신화·전설 너머 부처님 자취 따라 걸어서 1600리 탐구길

그 현장에서 펼치는 초기불교 학승과 대승불교 학승의 양보할 수 없는 세기적인 담론!

일찍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초기불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초기불교 학승 호진스님!
북전의 전통적인 교학과 실참실수의 반야안을 갖춘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인 대승불교 학승 지안스님!
여기 우정을 넘어선 우정이 있고 믿음을 넘어선 믿음이 있다. 두 스님이 양보할 수 없는 견해의 일전불사에 한국 불도들의 성장이 있다.

"싯다르타가 들으면 아연실색할 얘기들" 갠지스강 날아다니고, 죽은 어머니에게 설법?
'인간 붓다' 자취 밟은 호진·지안 스님 새 책. _조선일보 이한수 기자

부처를 닮기 위해 일생을 바친 두 도반 스님간의 진솔한 문답이 과연 부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케 한다. _부산일보 임광명 기자

신화와 전설을 씻어내 깨달음의 원형을 직접 탐사하려는 원로 학승과 전통강원에서 학술적 문헌을 송부하면서
탐사보도를 이끌어낸 또 하나의 원로 학승이 주고받은 기록의 현장은 진실의 가치를 한 꺼풀씩 더 벗겨간다. _불교신문 김종찬 기자

호진·지안 지음 | 272쪽 | 13,000원 | 도피안사 | 전화 02-419-8704 DOPIANSA 到彼岸社